

잠수부들 흐릿한 해저서 더듬더듬 유물찾기



국내 첫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

열화상관측장비·고압 산소실 등 갖춘
최대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 탑승
잠수사와 직접 대화하며 작업 지켜봐
도자기 조각 건져 올리자 일제히 환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9일 진행한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 발굴조사 현장 공개 행사에서 잠수 시연을 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일반 첫 공개 명량대첩로 수중 발굴 현장 가보니

9일 오후 2시 진도군 벽파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 처음으로 '누리안호' 탑승 체험과 함께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진도 오투리 앞바다에 위치한 명량대첩로 수중 유적지는 지난 2011년 도굴범 검거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수중 발굴 전용선 '누리안호'가 투입됐으며 4월부터 4차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발굴면적(550×200m) 중 약 6%를 확인했음에도 조선시대 개인용 화기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고려청자 등 유물 650여점이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부터 약 200m 지점에 위치한 '누리안호'로 가기 위해서는 소형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조심스레 탑승하던 참가자들 얼굴에선 긴장하는 기색이 엿보였지만 파도를 가르고 출발하자 이내 웃음빛으로 바뀌었다. 약 3분간 달린 보트 앞에서 무게 290t 길이 36m·너비 9m '누리안호'가 자태를 드러내자 탄성이 나왔다.

3개조로 나뉜 사람들은 조타실부터 들렀다. 정명화 선장은 "누리안호는 약 20여명이 20일간 머물며 수중 발굴

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며 "겨울철을 제외한 4~10월 물살이 잠잠한 사리때를 이용해 발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를 조종하는 타륜(舵輪)을 비롯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해상을 감시하는 열화상관측장비(TOD)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약 45일간 지원했다는 설명에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좁은 통로(폭 1.5m)를 지나 연구원들이 생활하는 조사 연구실을 거쳐 갑판 위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실에 도착했다. 원통형으로 생긴 치료실은 잠수부들이 급격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잠수병을 대비한 장치였다. 장시간 수중 작업을 한 잠수부들은 며칠씩 목으며 갑압을 하기도 한다. '누리안호' 잠수부들은 현재 2명이 1개조로 최대 30m 수심에서 약 1시간 작업하기 때문에 치료실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치료실을 본 홍상민 어린이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장비처럼 생겼다"며 "며칠씩 있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고 호기심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선박 전력공급장치와 엔진이 위치한 기관실을 둘러본 후 보트를 타고 울돌목 탐방에 나섰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로 왜선 133척을 무찌른

울돌목을 해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이날 행사 하이라이트는 잠수장비 설명에 이은 잠수조사 시연이었다. 드라이 슈트(침수를 차단해 보온효과를 높인 잠수복)를 입은 잠수부 박용기, 전장식씨는 산소공급기, 조명이 달린 머리보호구, 웨이트벨트 등을 사람들 앞에서 착용했다. 다 합하면 약 20~30kg 무게다. 배 뒤쪽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바다로 들어간 잠수부들은 부유물에 가려 시야가 50cm에서 1m 밖에 나오지 않는 수중을 더듬으며 유물을 찾았다.

머리보호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참가자들도 잠수 통제실에서 함께 바다 속을 볼 수 있었다. 잠수통제실에서는 영상과 무전기를 통해 최대 8명까지 잠수부들을 통제하는 공간이다. 희뿌연 화면 속으로 도자기가 보이자 어린이들은 화면을 가리키며 좋아했다. 잠수부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도 가졌다. "바다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날 잠수부들은 학이 그려진 도자기 조각 몇점을 건져올리며 박수를 받았다.

노경정 연구사는 "잠수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손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유물을 채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굴 완료까지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명량대첩로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춘풍경 1'

본보 김진수 기자 '동강국제사진제' 선정

국제공모전 부문 드론 사진 남도 풍경 작품 공모

광주일보 김진수 사진부 기자가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제15회 동강국제사진제' 국제공모전 부문에 선정됐다.



'가을 수채화'

지난 2002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이 주최하고 있는 '동강국제사진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공모전이다. 외국 저명한 미술관과 연계해 국제사진계 흐름을 알 수 있으며 국내외의 수준 높은 사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전, 초등학생 사진일기전, 보도사진전, 강원도사진전, 평생교육원 사진전 등 프로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다.

국제공모전은 올해 '하늘을 날다'를 주제로 항공 사진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전세계에서 작가들이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해 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진을 응모했다. 심사결과 한국에서는 6명, 외국에서는 18명이 선정됐다.

김 기자는 순천만 등 남도 풍경을 담은 작품 6점을 출품했다. 하얗게 눈이 덮인 광주시 생태공원, 붉은 칠면조가 수놓인 증도 태평염전, 유채꽃이 푸르른 고창 학원농장, 모심기에 한창인 농부들, 개불잡이에 맘을 쏟는 강진어민 사진 등이다. 또 자전거 대회 참가자 수백 명이 자전거를 늘려놓고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당선작들은 동강국제사진제 기간(15일~9월25일) 강원도 영월 동강사진박물관과 야외전시장 일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김 기자 작품을 비롯해 올해의 작가에 선정된 마 진중(Ma Jinzhong) 작품 등이 함께 전시된다. 또 대형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야외 영상소를 통해 당선 작가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 드론업체 'DJI 코리아'가 참가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올해 '동강사진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옥선 개인전, 영월사진기행, 동강사진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중앙박물관 신안선 40주년 특별전... 11월 광주 순회 전시

지난 1975년 8월20일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는 그물로 도자기 6점을 건져올린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을 태동시킨 신안선이 발견되던 순간이다.

문화재청이 올해 신안선 40주년을 기념해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9·30일 진도 명량대첩로 발굴 현장 공개를 두차례 진행한다. 신안선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수중 발굴 수준과 기술을 전용선박 '누리안호'와 함께 일반에 설명하는 자리다. 가장 큰 행사는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26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리는 '발굴 40주년 기념 신안 해저 문화재' 특별전이다. 신안선 선체와 유물 2만여점이 전시된다. 전국 순회 전시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11월22일부터 2017년 2월19일까지 열린 예정이다.

신안선이 복원·전시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10월 26일부터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역사를 돌아보는 '한국 수중 발굴 40년' 특별전을 연다. 11월에는 명대 집물선인 '난아오(南澳 1호선)' 관련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잠수부들이 수중에서 빨아들인 빨을 거름망에 걸러 확인하는 작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5회 2016 **청소년축제**
The 5th Youth Festival

No Bullying, Yes Bling!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시·도 교육감상 수여

모집분야 |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대상 |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 7월 18일까지
문의전화 | 062.220.0555 / 010.7174.125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주최 |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